

合 研



3

合 研



卷頭辭

비대면 없는 학기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조교장 이 일 규 올림

目次

I	II	III	IV	V
·	·	·	·	·
소식과 일정	재학생 동향	행사와 시설	규정과 약속	교류회 발표
—	—	—	—	—
4	8	20	24	36

I

소식과 일정

2020년 3월 ~ 2020년 8월

김용섭 저작집(1~9, 지식산업사) ‘한국학 저술상’ 수상 —— 2월

설혜심 교수 신간 —— 2월

『인삼의 세계사』, 휴머니스트

『학림』 45 —— 3월

특집: 한국 사회경제사 연구와 근대 -이상과 현실의 교차-

최윤오, 「『목민심서』에서 『경세유표』로의 전환 -양전제와 방전법을 중심으로-」

이석원, 「개항기 천주교회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토지 소유」

최원규, 「일제하 일본인 지주의 진영농장 설립과 경영 -村井吉兵衛와 迫間房太郎을 중심으로-」

일반논문

이지원,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 사회교화정책과 조선 민족성」

나상철, 「한국전쟁기 보국대의 의미와 성격」

유종수, 「北宋時代 ‘溪峒諸蠻’과 인접한 변경의 공간 구성」

이병철, 「전후 독일에서 구시가지의 재건과 지역 정체성 작업」

제11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 7월

주제: 〈한국 농업사 연구현황과 전망 -김용섭 교수 농업사 완간기념-〉

일시: 2020. 7. 3. (금), 13:00 ~ 18:00

장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외솔관 526호 멀티미디어실

개회식 [사회: 박경석(연세대)]

13:00 ~ 13:30 개회사 [최운오 연세사학연구회 회장]

발표 [사회: 정진혁(연세대)]

13:30 ~ 14:00 발표 1 ... 「송암 김용섭 교수의 농업사 연구와 저술」

발표: 백승철 (연세대 국학연구원)

14:00 ~ 14:30 발표 2 ... 「한국 고대 중세 전반기 결부제의 전개과정」

발표: 이인재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14:30 ~ 15:00 발표 3 ... 「조선후기 토지개혁론 연구와 토지공개념」

발표: 최운오 (연세대)

15:30 ~ 16:00 발표 4 ... 「조선후기 미곡생산성의 장기추이, 1660-1910」

발표: 우대형 (연세대 경제연구소)

16:00 ~ 16:30 발표 5 ... 「광무 양전·지계사업 연구와 토지소유권의 증가」

발표: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16:30 ~ 17:00 발표 6 ... 「한말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 검토」

발표: 최원규 (부산대)

총회 [사회: 장재영(연세대)] 17:15 ~ 18:00 연세사학연구회 총회

소식과 일정
2020년 9월 ~

2학기 주요 일정

9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포탈 입력
조교 배정
학부 답사

10월

학부 중간시험 (시험감독)
학위논문 예비심사

11월

대학원 신입학 서류·면접 전형

12월

제12회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학부 기말시험 (시험감독)
학위논문 본심사

1월

신년하례식
자격시험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

2월

대학원생 교류회 및 합동연구실 총회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 전공)
학위수여식

2학기 학과장 선생님

조태섭 선생님

2019. 9. 1. ~ 2021. 8. 31.

2학기 연구년 선생님

최윤오 선생님

2학기 사무실 · 합연실

조교장

이일규, 한국고대사 박사과정

사무조교

허혜주, 한국중세사 I 석사과정
손명락, 일본근현대사 석사과정
구지윤, 서양(영국)사 석사과정

합동연구실 총무 (517호)

박좌진, 한국현대사 석사과정

2학기 대학원 개설과목

한국사

김성보 선생님, 한국현대사회경제사연구

도현철 선생님, 한국중세사연습 I

이기훈 선생님, 한국근대사의제문제 II

조태섭 선생님, 한국고고학특강1

하문식 선생님, 선사고고학특강

하일식 선생님, 한국고대의사회구조

동양사

박경석 선생님, 동아시아근대화론

임성모 선생님, 일본근현대사의제문제

차혜원 선생님, 중국사상사연구

서양사

설혜심 선생님, 세계체제론

이재원 선생님, 서구열강과 제3세계

이내주 선생님, 최근구미역사학연구의동향

II

재학생 동향 졸업과 입학

졸업 — 2020년 8월

석사

양현봉, 「1980년대 초기 실용적 중국 인식 대두와 북방정책 정립」

정윤영, 「박정희 정부의 기업형 축산정책 추진과 굴절, 1964-1969년」

김은아, 「1970~1980년대 재미 한인사회의 ‘한국학교’ 운영과 한인 정체성 형성」

민병화, 「조선배화사건(1931) 이후 조선화교와 중국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 上海各界反日援僑委員會를 중심으로 -」

하영건, 「1950년대 일본 잡지 『서클무라』에 나타난 서클 공동체의 공간과 언어」

이현석, 「미국 IT 노동조합의 탄생과 IT 노동자들의 정체성
- 워싱턴테크노동조합(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을 중심으로 -」

박사

이세영,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

권기하, 『독립협회의 결사·집회 문화와 정치적 공공성』

곽경상, 『울산의 공업화와 도시계획 연구(1945~1970년대)』

신가영, 『4~6세기 加耶 諸國의 동향과 국제관계』

입학 — 2020년 9월

한국사

송정섭, 고고학 석사과정

김해인, 근대사 석사과정

장윤이, 근대사 박사과정

동양사

JIALIN LIANG, 중국근현대사 석사과정

XINTONG LI, 중국근현대사 석사과정

서양사

이창민, 서양사 석사과정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3월 ~ 2020년 8월

고고학

졸업과 입학

입학 · 〈석사〉 송정섭

전공생 현황 (2020-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서인선 정봉구 최경용 전소영 김소영 권수진 홍성수

수업학기 · 이상규

석사 논문학기 · 박지효

수업학기 · 김길수 김현진 이건웅 이태호 최민정 이민규 여수임

학석 연계과정 · /

학술 활동

정봉구 외, 「GIS분석을 이용한 경기 광주 유정리 구석기유적의 형성과 범위」

『한국구석기학보』 41, 한국구석기학회 (2020. 6.)

그 밖의 소식

이창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군무경력관으로 (2020. 5.)

박지효·김현진·이건웅, 2020년 대학박물관협회 미정리 유물 일제 등록 지원 사업(연세대 박물관) 참여 (2020. 8. ~)

한국고대사

졸업과 입학

〈박사〉 신가영 · 졸업

(2020-2 기준) 전공생 현황

이유진 남혜민 · 박사 논문학기

이일규 백길남 ·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전공생 세미나: 논문 구상·아이디어 발제 및 토론 (2019. 3. ~, 격월)

비정기: 논문 원고 검토

학술 활동

백길남, 「4세기 말~5세기 초엽 ‘백제왕(百濟王)’ 호의 책봉 배경과 ‘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 호의 의의」
『역사와 현실』 115, 한국역사연구회 (2020. 3.)

백길남, 「2019년 백제 한성기 문헌사 연구 성과와 전망」
『백제학보』 32, 백제학회 (2020. 5.)

신가영, 「가야 諸國과 고구려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8, 한국고대사학회 (2020. 6.)

이일규 · 남혜민, 「태안사 적인선사비의 이수(螭首)와 ‘비말(碑末)’에 관하여」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상반기 결산 총회 · 연구발표회〉 (2020. 7. 18.)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3월 ~ 2020년 8월 (이어서)

한국중세사 I

졸업과 입학

없음

전공생 현황 (2020-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최민규 이상민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장재영

수업학기 · 양강(YANG KANG) 허혜주 송지연

학석 연계과정 · /

학술 활동

이상민, 「15세기 지방의 유식자 활용과 평민 교화」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총회 연구발표〉 (2020. 6. 18.)

최민규, 「김정국의 『性理大全書節要』 편찬과 大體君主論」

〈한국사상사학회·연세대 동아시아 고전연구소 학술회의〉 (2020. 7. 25.)

한국중세사 II

졸업과 입학

없음

(2020-2 기준) 전공생 현황

홍해뜸 조인희 김태홍 정진혁 · 박사 논문학기

이재빈 단백혜(DUAN BAIHUI) · 수업학기

김미승 강진주 장영민 박혜림 · 석사 논문학기

히토미아오이(HITOMI AOI) · 수업학기

/ · 학석 연계과정

학술 활동

홍해뜸, 「조선 후기 목민서의 제사(題辭) 비교와 수령정치 구상」

『한국사상사학』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4.)

그 밖의 소식

강진 답사: ‘다산문화’의 활용에 대한 미래세대의 체험 및 진단 (8. 1. ~ 2.)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3월 ~ 2020년 8월 (이어서)

한국근대사

졸업과 입학

졸업 · 〈박사〉 권기하

입학 · 〈석사〉 김해인 〈박사〉 장윤이

전공생 현황 (2020-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주운화 이현희 정경민 노상균 김호걸 이정윤

수업학기 · 김나라 장윤이

석사 논문학기 · 허성호 조민영 최용준 이정용

수업학기 · 이규연 김예림 이기선 김해인

학석 연계과정 · 김홍준

세미나 운영

논문 세미나 (2020. 5.)

자료 특강 세미나 (2020. 8.)

근대사 스터디 (2020. 7. ~)

학술 활동

김나라, 「강화 직물의 역사적 재고(再考)와 소창의 가능성」

『민속학연구』 46, 국립민속박물관 (2020. 6.)

이정윤, 「19세기 말~20세기 초 대러시아 소 수출과 유통구조의 변화」

『한국사연구』 189, 한국사연구회 (2020. 6.)

한국현대사

졸업과 입학

〈석사〉 김은아 정윤영 양현봉 〈박사〉곽경상 이세영 · 졸업

(2020-2 기준) 전공생 현황

김은정 김대현 이봉규 김세림 이준희 정다혜 김지훈 박은영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송용욱 안광혁 제임스(FRETWELL JAMES ANDREW) · 석사 논문학기

천오성 김보람 박좌진 성건호 고낙일 · 수업학기

서준호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박사학위논문준비 세미나 (박사생, 매달)

석사학위논문준비 세미나 (석사생, 7~8월)

학술 활동

김대현, 「워커힐의 ‘디바’에게 무대란 어떤 곳이였을까 - 1960~70년대 유흥업과 냉전시대의 성문화」

오혜진 기획, 『원본 없는 판타지 -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4.)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3월 ~ 2020년 8월 (이어서)

중국근세사

졸업과 입학

없음

전공생 현황 (2020-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남민구 박찬근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한만휘 장월

수업학기 · 김진송 이영기

학석 연계과정 · /

세미나 운영

4대학(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한양대) 연합세미나 (2020. 6. 22. ~)

그 밖의 소식

남민구, 2020-1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우수논문(인문·사회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9 「萬曆年間 海澄縣 상선 징세와 그 배경」 『동양사학연구』 149)

중국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석사〉 민병화 · 졸업

〈석사〉 JIALIN LAING XINTONG LI · 입학

(2020-2 기준) 전공생 현황

지관순 김민서 유현정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심민보 양청청(YANG QINGQING) 방수미 JIALIN LAING XINTONG LI · 수업학기

조준희 · 학석 연계과정

세미나 운영

4대학(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한양대) 연합세미나 (2020. 6. 22. ~)

재학생 동향

전공별 현황 : 2020년 3월 ~ 2020년 8월 (이어서)

일본근현대사

졸업과 입학

졸업 · 〈석사〉 하영건

전공생 현황 (2020-2 기준)

박사 논문학기 · 윤정환

수업학기 · /

석사 논문학기 · 장재경 김보람

수업학기 · 손효지 손명락

학석 연계과정 · 전해현

세미나 운영

일본사 스터디 (2020. 8. ~, 매주)

서양사

졸업과 입학

〈석사〉 이현석 · 졸업

〈석사〉 이창민 · 입학

(2020-2 기준) 전공생 현황

석영달 · 박사 논문학기

/ · 수업학기

전유한 고혜진 박서현 · 석사 논문학기

신충의 전장원 구지윤 이창민 · 수업학기

정호원 · 학석 연계과정

III

행사와 시설

주요 행사 소개

신년하례식

1월. 대개 첫째 주. 교내 알렌관에서.
선생님들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등이 모이는 자리.
다과를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듣는 자리.
한 해 학과와 동문의 동향, 졸업생과 신입생을 소개.

연세사학연구회 학술발표회

6월과 12월.

『학림』을 발간하는 연세사학연구회의 정기 발표회.
사학과 홈페이지 메뉴에서, 학회 · 학술사업 > 연세사학연구회
(https://history.yonsei.ac.kr/histroy/05_hakrim/hakrim_intro.do) 혹은,
JAMS의 연세사학연구회 페이지 (<https://hakrim.jams.or.kr>) 참조.

논문 공개발표회 (한국사전공)

8월과 2월.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할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사 전공생이 학위논문을 발표하는 자리.
발표 후 선생님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받고, 동료 대학원생과도 질의응답.
한국사전공의 석·박사과정생이 발표하나, 발표회 참관은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

사학인의 밤

2학기 중. 대개 10월.

대학원생 행사는 아니나, 사학과 선생님들과 동문 및 학부생들이 모이는 자리.
주로 사회 각계의 동문 졸업생을 초대하여, 해당 진로에 관심있는 학부생을 연결해주는 행사.
이로 인해 '각계'의 하나로서 대학원생이 참여하기도 함.
사학과 학부 학생회가 주관.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아래 합동연구실 총회와 함께 개최.
3~4인의 발표자가 논문 습작 혹은 수업 보고서 발표 및 토론.
자세한 내용은 회보 V장 참고.

합동연구실 총회

8월과 2월.

합동연구실 이용자들의 정기 회의.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의 관련 내용(본 책자 30쪽)을 참고.

행사와 시설

주요 시설 소개

사학과 사무실

주소 · 홈페이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519호

<https://history.yonsei.ac.kr>

연락처

02-2123-2370

yhisto@yonsei.ac.kr

근무 시간

평일 10:00 ~ 12:00, 13:30 ~ 17:00 (단, 방학에는 15:00까지)

사학과 대학원 세미나실

위치

외솔관 627-1호

대관 방법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외솔관 627-1호 세미나실 대관 클릭**

대학원 수업 및 이미 신청되어 있는 행사 날짜·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

겹치지 않으면 과 사무실에 방문 혹은 연락하여 신청

(아쉽게도, 전산상으로 자동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과 합동연구실

위치

큰 방: 외솔관 517호

작은방: 외솔관 513호

이용에 당부드리는 점

합연실 내규와 세칙을 잘 읽어주세요.

합연실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경우, 잠시일지라도 반드시 도어락을 걸어주세요.

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경우, 불과 냉·난방을 꼭 끄고,

[※중요] 쓰레기통을 복도 끝 합연실 큰방 문 앞으로 꺼내 놓아 주세요.

합연실 프린터로 인쇄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내역을 기록해 주세요.

합연실 도서는 공용이므로, 잡지 등을 이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두어 주세요.

상임석 신청 방법

매 학기 방학마다, 합연실 총무가 상임석 신청 공지를 띄웁니다.

공지 확인은, 사학과 홈페이지(<https://history.yonsei.ac.kr>) 접속

바로가기 버튼 중 합동연구실 상임석 신청 클릭

〈합동연구실 이용〉 게시판의 신청 공지 확인하여 댓글로 신청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는, 연세포탈의 ID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VI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1. 전공분류

전공을 한국사전공, 동양사전공, 서양사전공으로 나눈다.

2. 입시

가. 입학은 전공별로 구별하여 전형한다. 전공분류가 애매한 경우 중점분야에 준하여 입학한다.

나. 석사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입학정원은 전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전공 내에서도 현재 대학원 재학생 및 입시생의 분포를 감안하여 전공영역별로 입학생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전형

1) 서류심사

제출서류 : ① 학위논문 ② 기타 연구성과물 ③ 어학 및 특수분야 연수증명 혹은 성적표

심사기준 : [석사]

학업계획서(*1) 70점 / 대학성적(*2) 70점 / 연구활동 및 외국어연수실적 (*3) 60점

- 합계 200점

*1 : 주제 선정에 나타난 안목을 연구 상황에 비취 평가

*2 : ① 전공과목의 이수성적 ② 강독 · 특강 · 연습과목 이수성적 우선

*3 : 전공연구에 필요한 도구류의 준비정도

[박사]

학업계획서 및 석사학위논문(*1) 70점 / 대학 및 대학원 성적(*2) 70점

/ 연구성과, 학회활동 및 어학·특수강좌 이수경력 60점 - 합계 200점

*1 : 학업계획서 30점, 석사학위논문 40점

*2 : 대학성적 30점, 대학원성적 40점

2) 구술시험

전공에 대한 지식 20점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0점 /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 어학능력(*1) 20점 / 연구분야 및 여건의 특수성(*2) 20점 - 합계 100점

*1 : 전공분야 사료 및 외국어 독해능력

*2 : 본과 교수진용과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연구분야와 여건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책적 고려

3. 과정이수

가. 석사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8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학부과정에서 역사전공이 아닌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부과목을 보충 수강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 연계과목 중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3) 학부에 개설된 대학원 연계과목 중 학부시절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
- 4) 학부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원 연계과목을 학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에 의해 6학점까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소정의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기왕의 이수과목과 성적이 연구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할 경우 연구지도과정을 통하여 보충수강을 지도할 수 있다. 이 역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한 학기 이수과목은 보충수강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박사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중 최소 36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석사과정에서 30학점을 초과 이수하였거나 재입학 등으로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삭제>(2015년 8월 개정)
- 4) 박사과정생은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에는 발표실적이 2편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3. 과정이수 (이어서)

다. 석·박사 통합과정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33학점을 자신의 전공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타분야 혹은 타학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 과정이수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박사과정(3-나)과 동일하다.

4. 전공영역 및 지도교수

가. 입학시 전공은 졸업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학한 학생은 1학기 내에 전공영역을 명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그 변경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전공영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사전공 : ① 한국고대사 ② 한국중세사1(統一新羅·高麗) ③ 한국중세사2(朝鮮)
④ 한국근현대사 ⑤ 한국사회경제사 ⑥ 한국정치사 ⑦ 한국사상사 ⑧ 대외관계사
- 2) 동양사전공 : ① 중국고중세사 ② 중국근세사 ③ 중국근현대사 ④ 일본고중세사
⑤ 일본근현대사 ⑥ 중앙아시아사 ⑦ 인도·동남아시아사 ⑧ 서아시아사
- 3) 서양사전공 : ① 고대희랍 및 로마사 ② 중세유럽사 ③ 근대영국사 ④ 근대프랑스사
⑤ 근대독일사 ⑥ 미국사 ⑦ 동유럽·러시아사 ⑧ 남유럽사 ⑨ 북유럽사

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외국어(영어)

한국사 : TOEFL(PBT 500점, IBT 60점, CBT 170점 이상), TOEIC 610점 이상, TEPS 485점 이상

동양사 : TOEFL(PBT 530점, IBT 71점, CBT 197점 이상), TOEIC 640점 이상, TEPS 515점 이상

서양사 : TOEFL(PBT 550점, IBT 79점, CBT 213점 이상), TOEIC 685점 이상, TEPS 560점 이상

2) 제2외국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학과 자체 출제) 외부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JPT는 540점 이상), 중국어는 新HSK 5급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3) 외국인 석·박사과정생은 제 1외국어로서 영어 대신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박사과정의 제 2외국어는 출신지역의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한문포함)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

라.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사전공

석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박사과정 : ① 주전공 영역, ② 인접시기1, ③ 인접시기2 또는 연관주제

2) 동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와 구조 ② 주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박사과정 : ① 중국사연구의 최근동향 ② 주전공영역 일반 ③ 전공인접영역

3) 서양사전공

석사과정 : ① 역사의 이론 ② 서양사 일반 ③ 전공영역 일반

박사과정 : ① 최근의 역사이론과 연구방법 ② 전공영역 ③ 전공인접영역

4) 종합시험의 출제 및 사정은 전공단위의 교수 전체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규정과 약속

대학원 사학과 내규 (이어서)

1995년 10월 제정

2015년 8월 개정 (10차)

6. 논문작성 및 심사

- 가.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곧바로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 나. 논문지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불능’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교수는 다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점 이수,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다.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 이수 및 종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라.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할 수 있다.
- 마. 학위논문의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 9월)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 1) 한국사 전공 학생이 예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심 이전학기 말(6월, 12월 말)에 공개발표를 해야만 한다.
 - 2) 한국사 전공 학생의 경우 최종학기(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에는 예심을 청구할 수 없다.
- 바. 논문제출서가 제출되면 주임교수는 전공분야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사. 논문이 제출되면 예심이전에 전공단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공개발표시에는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학과 교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아. 예심 후 주임교수는 논문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학과내 교수와 학생은 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준용원칙

가. 본 내규는 2003년 9월 현재 대학원 학칙 및 제 내규에 근거한다.

나. 대학원 학칙 및 내규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본 내규의 정신에 근거하여 준용한다.

다. 미비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개괄

합동연구실은 외솔관 517호(이하 ‘큰방’)와 513호(이하 ‘작은방’)를 아울러 말한다.
연구실의 도서와 설비는 학부·대학원 전공생 등 사학과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연구실을 이용할 때에는 함께 있는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총무와 총회

큰방과 작은방에 각각 총무를 한 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큰방 총무는 합동연구실의 시설과 재정을 관리하며, 매 학기 시작 전에 총회를 연다.
작은방 총무는 작은방을 관리하며, 큰방 총무를 보조한다.
총무는 연구실 이용과 상임석 배정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회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계 보고, 상임석 배정, 차기 총무 선출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상임석과 공용석

합동연구실의 좌석은 상임석과 공용석으로 구분한다.
상임석은 내규에 따라 배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공용석은 상임석이 아닌 모든 좌석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정 공용석을 한 사람이 전용하여 다른 연구실 이용자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상임석 신청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 (2) 매 학기 총회에 앞서 신청하고, 총회에서 참석해야 상임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 (3) 휴학을 할 학기에는 상임석을 신청해 이용할 수 없다.

상임석 배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상임석 배정의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비율은, 그 학기 신청자의 비율에 맞춘다.
- (2) 단, 석사 혹은 박사학기생 신청자 합의 한쪽이, 다른 쪽 신청자 합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해당 과정생은 수업학기생과 논문학기생을 나누지 않고 합쳐 상임석 배정의 비율을 산정한다. ※주1
- (3) 상임석은 입학 후 4개 학기마다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4회째 신청하여 이용할 수는 있지만 최하 순위로 배정한다.
- (4) 4개 학기 내에 상임석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고학기생일수록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다.
- (5) 우선순위는 석사수업학기생·석사논문학기생·박사수업학기생·박사논문학기생 안에서 각기 따로 구분하여 매긴다.

단, 본 항의 (2)에 따라 수업학기와 논문학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정의 신청자를 합쳐 우선순위를 매긴다.

본 항의 (3)에 따른 최하 순위자도 이와 같이 따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020. 2. 개정)

- (6)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순위를 다시 구분해야 할 경우, 고학기생을 우선한다.
- (7)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1~4학기는 석사수업학기생, 5~8학기는 석사논문학기생, 9~12는 박사수업학기생, 13학기 이상은 박사논문학기생으로 간주한다.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이어서)

2019년 8월 제정

2020년 2월 개정

상임석 신청과 배정, 이용 (이어서)

상임석 신청·배정·이용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 (1) 다음 신청자는 배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0순위')가 있다.
가. 과 사무실 조교장 / 나. 과 사무실 분과조교
- (2) 다음 이용자는 상임석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가. 과 사무실 조교장 / 나. 큰방 총무
- (3) 신청자가 총회에 불참하고 대리인에 위임할 경우, 우선순위를 하나 내린다.
- (4) 상임석 이용자가 휴학하면 그가 지정한 사람 혹은 차순위자가 이용한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공용석으로 둔다. 이때 이용횟수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학기 1/3 초과시: 휴학한 前이용자가 이용한 횟수로 계산하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나. 학기 1/3 이하시: 前이용자의 이용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새 이용자의 횟수로 계산한다.

상임석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 (1) 배정받은 상임석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차순위자에 상임석을 양도해야 한다.
- (2)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 (3) 합동연구실 청소에 일정하게 참여해야 한다.

사물함 신청과 배정, 이용

사물함은 매 학기 상임석 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한다.

상임석을 이용하지 않는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이 신청해 배정받을 수 있다.

사물함 이용자는 일정한 회비를 내야 한다.

기타

내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에서 정한다.

내규의 개정 등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세칙의 제·개정 등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또는 합동연구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다.

※ 주1

가령,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5:3이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8)이 낮으므로,

상임석 배정의 비율은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학기 = 12:6:8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10. 15:5. 07:6. 76, 반올림하면 10:5:7.

만약, 석사수업학기:석사논문학기:박사수업학기:박사논문학기의 신청자가 12:6:6:4라면,

석사학기 신청자 총합(=18)의 절반(=9)보다 박사학기 신청자 총합(=10)이 낮지 않으므로,

상임석 배정 비율은 그대로 석사수업:석사논문:박사수업:박사논문 = 12:6:6:4로 계산한다.

상임석이 전체 22석이라면, 실제 좌석 수는 9. 42:4. 71:4. 71:3. 14, 반올림하면 9:5:5:3.

규정과 약속

합동연구실 이용 내규 세칙

2019년 8월 제정

총무의 혜택

큰방 총무는 상임석을 사용하더라도, 회비 납부와 청소 참여의 의무를 면제한다.

상임석 좌석 수

큰방, 작은방을 아울러 합동연구실 상임석의 수는 22석으로 한다. ※주2

상임석 수의 변동은 이후 지양한다.

공용석 지정

공용석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큰방의 개인 자리 3석을 공용석으로 지정한다.

상임석 신청자의 총회 참석

상임석 신청자가 무단으로 총회에 결석·지각할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배정되지 못한 잔여 상임석은 다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회비 납부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25,000원이다. ※주3

사물함 이용자의 한 학기 회비는 5,000원이다.

연구실 청소 의무

합동연구실 상임석 이용자는 한 학기에 적어도 청소 3회 및 대청소에 참여해야 한다.

※ 주2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석에서 22석으로 늘림.

- 내규 개정에 따라 박사논문학기생이 상임석을 신청하여 배정할 수 있게 명시했기 때문.

※ 주3 - 2019-2학기 총회 의결에 따라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

- 연구실 기자재 증가 등으로 유지비가 늘었던 점을 감안.

혹시 다음 학기 회보에 짧은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은,
A4 1~3장 내외의 분량으로 어떤 주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asaki.yumemiji@yonsei.ac.kr (이일규)
투고 기한: 2021년 1월 말까지

V

교류회 발표

2020-1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제1회)

2020-1 사학과 대학원생 학술교류회 및 합동연구실 총회

일시: 2020. 8. 17. (월), 13:00 ~ 16:00

장소: 비대면 온라인 회의(ZOOM)

· **합동연구실 총회** [사회: 김보람 (일본근현대사, 석사 4)]

13:00 ~ 14:00

· **학술교류회 발표** [사회: 이일규 (한국고대사, 박사 3)]

14:00 ~ 14:40 발표 1 ... 「개발 주체들의 불화와 농가의 기회:

박정희 정부 시기 기업형 축산정책의 굴절(1964-1969년)」

발표: 정운영 (한국현대사, 석사 6)

토론: 김지훈 (한국현대사, 박사 7)

14:40 ~ 15:20 발표 2 ... 「〈가정고문〉으로 본 『동아일보』의 독자투고란 운영과 독자」

발표: 김예림 (한국근대사, 석사 1)

토론: 이정윤 (한국근대사, 박사 5)

15:20 ~ 16:00 발표 3 ... 「독자란 없는 『삼천리』의 대중성

- ‘교차점’과 ‘삼천리 일색’을 중심으로 -」

발표: 이규연 (한국근대사, 석사 3)

토론: 이정용 (한국근대사, 석사 4)

발표 1 「개발 주체들의 불화와 농가의 기회: 박정희 정부 시기 기업형 축산정책의 굴절(1964-1969년)」 요지문

정 윤 영 (석사 6)

1. 머리말
2. 정부의 저육가 정책과 기업형 한우목장 조성 논의
 - 1) 쇠고기 가격통제와 서울의 '쇠고기 파동'
 - 2) 농림부 기술직 관료의 부농 육성 추진과 한계
3. 정부의 대자본 유치 시도와 한우 생산주체의 변화
 - 1) 농림부의 기획관리 관료 중시와 대자본 유치
 - 2) 대자본의 이탈과 전업축산농가의 형성
4. 맺음말

발표요지

196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농업구조개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재개했다. 소비재 초과수요에 따른 소비재 가격 폭등을 계기로, 농업경영 주체 개편을 통한 소비재의 도시 공급기반 확충과 농업근대화 노선 수정이 요구됐다. 이 연구에서는 쇠고기 초과수요를 계기로 한우 생산주체 개편에 나선 관료층을 살펴봤다. 국가적 발전전략 속에서 예산과 금융을 운용해나가 기획관리 행정에 특화된 행정직 관료는 농가 중심의 농업근대화 노선을 부정하고 공업부문 대자본 유치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산간지 초지 조성을 통한 농공업 육성과 산간지 목장 운영을 통한 생산량 확대뿐 아니라, 산간지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라는 농촌 개발 부담까지 전가되자 대자본은 축산사업을 백지화했다. 대자본 중심의 선택적 자원 배분과 '개발' 전략이 농업부문에도 확장된 가운데 효율성을 좇는 자본의 특성이 이 시기 축산정책에서 정부와 대자본 간 불화를 낳은 것이었다. 이는 축산의 기업화라는 대전제 하에 수익을 모색한 농가의 전업축산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 후마니타스, 2017

김민석,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 정책』,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Bruno Latour, *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김보현,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경제와 사회』 124, 비판사회학회, 2019

송인주, 「농업의 산업화와 한국의 축산혁명」, 『농촌사회』 21(1), 한국농촌사회학회, 2013

송인주, 「한국 산업축산의 발전과정: 구조적 생태문제의 세계사적 연원」, 『환경사회학연구』 22(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이봉규, 「이승만정권기 행정분야 기술원조 도입과 행정개혁론의 성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은희, 「박정희 시대 낙농진흥정책과 낙농업의 발달」, 『동방학지』 18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조석곤, 「1960년대 농업구조 개혁논의와 그 함의」, 『역사비평』 88, 역사비평사, 2009

조석곤 외, 「농업구조조정의 좌절과 소득정책으로의 전환: 1960년대 후반 농지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Josep Pujol-Andreu-Andreu y Xavier Cussó Segura, “La transición nutricional en Europa Occidental, 1865-2000: Una nueva aproximación,” *Historia Social* Vol. 80, 2017

발표 1 「개발 주체들의 불화와 농가의 기회: 박정희 정부 시기 기업형 축산정책의 굴절(1964-1969년)」에 대한 토론문

김 지 훈 (박사 7)

1. 논문의 장점

- 오늘날 축산 산업의 정책적 기원을 파악.
- 68년 전후 축산정책 당시, 정부 내부 농림기술관료와 경제기획관료의 갈등을 정책논의와 인선의 측면에서 세밀히 복원.

2. 대자본 용어의 문제

- 논문의 장, 절, 본문에서 대자본이라는 용어와 공업자본이라는 용어가 혼재.
- 대자본에 관한 최근 연구(이정은, 『박정희 정권시기 대자본의 외자도입과 금융기관 진출 연

구(1960~1973)』,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가 참고됨.

- 이정은의 대자본 규정은 규모적 측면에서 1960년대의 40대 대기업, 성격적 측면에서 “부르주아의 적응전략의 산물”로 정의. 즉 대자본이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성에 주목함. 이들의 신규투자는 1) 이윤이 전망되고 2) 외자도입이 합의된 부문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짐.
- 다만 본 논문에서 대자본은 능동성보다는 수동적 존재로 서술.

3. 개발 주체들의 불화, 발전국가론?

- 발전국가: 사회의 경제적 계급구조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정부가 권위주의적 개입을 통해 자원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 정윤영의 구상 방향: 개발 주체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갈등은 세밀히 묘사. 정부 안의 균열과 비합리성 조명.
- 다만 일부 서술양상은 박정희의 현지도시식에 의존.
- 양 군의 관료가 입안한 정책의 갈등과 경합과정이 정책의 내적 논리보다는 외적 조건 변화에 의해 서술된 경향.
- 국가 이외 주체의 무화, 개발독재를 옹호할 수 있는 맥락.
- 막스베버의 관료제 논의, 관료제라는 (관리 경영 기획)기술적 우위 시스템. 근대사회의 형식합리성 추구는 역설적으로 근대가 지향한 인간적 가치라는 실질합리성이 훼손될 가능성.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철창.

4. 결론 부분 전업축산 농가의 확대로의 전환, 누구 말대로 된 것인가.

- 농림기술관료 VS(대결) or X(콜라보) 경제기획관료
- 농림부의 농기업화는 경제기획원의 농공업화에 비해 박정희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개발 논리와 흐름을 간과한 것(11-12쪽). 본문에서 농림부의 실패가 전제되어 있다는 인상.
- 그런데 71년 전업축산농가 확대로의 전환이라는 결론, 누구 말대로 된 것인가.
- 71년 현재 전업축산 농가의 확대를 나타낸 21-22쪽의 표 5, 6.
- 농림부 기획하의 71년 전망, 부농-기업화 육성과 10쪽 2문단 농림기술관료의 『축산진흥계획』.
- 농림부의 기획에 상당히 합치하는 71년도 현황 데이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전업축산 농가의 형성은 1964년을 분기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연속성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1쪽 각주 2)라는 전제의 회수 필요성.
- 또 다른 주체의 문제, 71년 전업축산농가 확대로의 전환은 생산 주체인 농가에게 기회인가, 피 전가인가.

발표 2 「〈가정고문〉으로 본 『동아일보』의 독자투고란 운영과 독자」

요지문

김 예 립 (석사 1)

1. 들어가며
2. 〈가정고문〉 등장과 투고 분석
 - 1) 〈가정고문〉의 등장
 - 2) 〈가정고문〉 시기 구분 및 투고 분석
3. 계몽의 장, 〈가정고문〉
 - 1) 〈가정고문〉 운영원리
 - 2) 계몽과 교육의 장으로서 〈가정고문〉
4. 〈가정고문〉 독자와 가정 여성의 글쓰기
 - 1) 투고자의 자기표현 및 자기인식
 - 2) 투고자 분석 - 가정 여성의 글쓰기
5. 나가며

발표요지

이 글은 식민지기 『동아일보』의 〈가정고문〉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일보』의 독자투고란 운영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한 독자를 추적한 글이다. 당시 신문은 상업적 효과를 위해 독자를 지면에 호명하며 이들을 위한 공간을 내주었다. 그 중 〈가정고문〉은 문화면 가정란에 위치한 코너로, 가정 및 일상에 대한 독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기자의 답변을 실는 독자투고란이었다. 이는 문학, 논설과 같은 상급 글쓰기 능력이 부재한 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가정여성들의 투고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20년대 초기 〈가정고문〉은 가정과 위생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정보제공’의 장이었으나 1930년대가 되며 점차 가정에 대한 ‘고민상담란’으로 변하였다. 이 시기와 맞물려 기자-독자 간 수직관계에 기반을 둔 ‘권력’이 발견되는데 이는 『동아일보』가 단순히 독자투고란을 ‘정보제공’만이 아닌 ‘계몽과 교육의 공간’으로 작동시키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기자는 바람직한 ‘근대 가정’의 상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가정고문〉을 계몽의 장으로 이끌었다.

기자들에게 이곳은 계몽성이 짙은 공간이었지만 독자들에게 이곳은 ‘자신을 표현’하고 ‘함께

고민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곳이었다. 곧 같은 공간이어도 이를 이용하는 주체별로 각자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 공간을 향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고자를 분석할 결과 여성, 그중에서도 가정 여성의 투고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비교적 쉬운 일상 글쓰기 방식과 민간지 신문이라는 매체적 특성 덕분에 가능했다. 이 결과는 가정란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과 당대 여성이 문자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투고자 분석을 통해 『동아일보』 독자층의 일면 역시 엿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東亞日報社史, 卷1, 1920~1945』, 東亞日報社, 1975

전은경, 『미디어의 출현과 근대 소설 독자』, 소명출판, 2017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가정부인欄’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2004

박용규, 「일제하 민간지 기자집단과 사회적 특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직업의식과 직업적 특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손동호, 「『동아일보』의 독자참여제도와 문예면의 정착」,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이기훈, 「1920년대 언론매체와 소통공간-동아일보의 자유종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4, 2009

이동성, 「권력과 지식 그리고 주체-푸코의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5, 2009

이민주, 최이숙, 2016, 「『매일신보』의 ‘부인과 가정’란을 통해 살펴본 1920년대 초반 ‘부인’에 대한 시선」, 『한국언론학보』 60(6), 2016

전은경, 「근대 계몽기의 신문 매체와 “독자” 개념의 근대성 - 번역어 “독자”의 성립 과정과 의사소통의 장」, 『현대문학이론연구』 46, 2011

발표 2 「〈가정고문〉으로 본 『동아일보』의 독자투고란 운영과 독자」 에 대한 토론문

이 정 윤 (박사 5)

발표자는 동아일보의 독자투고 코너 중 하나였던 가정고문란의 운영방식과 목적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일상적인 고민상담이라는 코너의 특성이 여성들을 글쓰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고 분석하였다.

1. 동아일보 가정고문에서 '가정'의 범주는 무엇인가

발제자가 분류한 바에 따르면 가정고문 제1기(1926. 4~1927. 3)는 "해결치 못한 사정을 가진 부인네들을 위한" 코너로, 투고자를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여성들의 가정, 결혼 관련 고민을 상담해 주거나, 건강, 학업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면 기자가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제2기(1927. 5~1928. 8)부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겠다 하였으며, 남성도 가정고문의 투고자에 포함되었다. 가정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겠다 하였던 목적과는 달리, 가정, 결혼 등 고민상담 비중이 축소되고 개인의 위생, 건강에 대한 질문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생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의사들이 초빙되기도 하였다.

제3기(1929. 1~4)부터 위생 문제는 가정고문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가정고문은 다시 고민상담의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위생 문제는 1930년 1월부터 신설된 위생고문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후 제4기, 제5기 동안 가정고문은 가정 관련 고민상담란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제2기 가정고문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룰 것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본래 목적인 가정 내 고민상담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위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시기 <신여성>과 같은 여성 대상 잡지의 가정란에서도 위생, 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주로 질병에 대한 상식과 간호방법, 예방법, 다쳤을 때 응급처치 하는 법 등 가정에서 일반인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의료지식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반면 가정고문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내용이 '가정'의 범주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2. 동아일보 밖의 세계와 연관짓기

동아일보 가정고문란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 좀더 나아가 분석한 결과를 당시 사회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일례로 동아일보 가정고문란에 고민을 보내는 것을 계기로 여성이 글쓰기의 주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동아일보 밖의 세계에서는 어떤 변화, 어떤 효과가 따르게 되었는지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다.

발표 3 「독자란 없는 『삼천리』의 대중성

－ ‘교차점’과 ‘삼천리 일색’을 중심으로－ 요지문

이 규 연 (석사 3)

1. 머리말
2. 대중잡지로의 표방 『삼천리』
3. 독자와의 소통 방식 - ‘현상모집’과 ‘교차점’
 - 1) 『삼천리』의 독자전략과 지향
 - 2) ‘교차점’
 - 3) ‘현상모집’ - 삼천리 일색
4. 맺음말

발표요지

근대 잡지나 신문은 매체적 특성과 함께 그 시대의 흐름과 질서, 권력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을 향유하는 독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자투고란’을 분석은 네트워킹 방식을 통해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를 재현하고 조직하며, 개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것을 수용하는 다양한 개인의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근대 여러 매체 중에서도 다양한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읽을거리를 실었던 대중잡지이자 오랜 기간 존속했던 『삼천리』에 관한 ‘독자란’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삼천리』는 ‘독자투고란’이 따로 개설되어있지 않았던 잡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천정환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대중 시사 종합지로서의 『삼천리』의 민족주의 지향성, 민족, 젠더 등에 주목하여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삼천리』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타 매체에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독자’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장치인 ‘독자 참여’가 『삼천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삼천리』 독자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잡지사의 입장에서 살펴본 ‘독자’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본고 역시 그러한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왜 『삼천리』는 대중잡지임에도 독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대중잡지 『삼천리』는 왜 독자 참여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본고는 궁극적으로 『삼천리』를 통해 ‘대중잡지’의 대중성 확보가 ‘활발한 독자 참여’에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통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독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삼천리』이지만, 잡지 내 코

너에서 독자와의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교차점>과 <현상모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삼천리』의 대중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더불어 『삼천리』는 어떠한 독자전략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삼천리』의 <교차점>은 독자에게 잡지사를 경유하여 신설 초기 잡지사의 공인의 답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다. <교차점>의 형식은 잡지사의 공인에서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게 변화했으며, 그 내용은 간결하고 사회공중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독자들의 주 질문 대상이 『삼천리』사의 주요 필진, 명사라는 점이다. 질문의 주제 역시 명사의 근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연령을 묻거나, 출옥이 얼마나 남았는지, 책은 언제 출판하는지, 그들의 자녀의 교육은 어떠한지를 묻고 답하는 형식은 독자들의 투고 형식을 빌어 『삼천리』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적으로 노출 시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독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삼천리』에 독자들간의 대화나 <교차점>에 관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살펴볼 수 없다. 그렇지만, 독자들에게 투고라는 직접적인 참여 방식과 가정에서 있을 법한 문제를 주요 인사에게 물어 해결책을 얻는 형태, 그리고 가정질문을 적절히 섞어 배치했던 것은 『삼천리』에 대한 신뢰를 더 해주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한편, 현상모집은 또 다른 독자 참여 방식이었는데 『삼천리』는 특히 이러한 현상 모집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타 매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독자확보를 위해 진행했던 독자 투고 현상모집에 비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상모집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삼천리 일색>도 그러했다.

<삼천리 일색> 현상모집의 참여자는 실제 구독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응모하는 자를 구독자로만 제한하지 않았던 <삼천리 일색>의 참여자는 실제 구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모든 ‘대중’이었다. 한편, <삼천리 일색>은 심사위원진도 각계의 주요 인사들로 포진시켰다. 선발된 여성들은 단순히 심미적인 요소 뿐 아니라 학력, 나이, 집안까지 모두 평가받았다. 민족적 여성의 표상은 이런 것임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삼천리 일색>이었던 것이다. 물론, ‘세상에 자랑할만한 여인’을 민족적 여성의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석이 나뉠 수 있다. 김동환의 민족주의적 지향을 근거 삼아 『삼천리』의 지향성을 ‘민족주의’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삼천리』가 막연히 민족주의를 지향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본고에서 『삼천리』를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전반적인 기사의 내용 그리고, 현상모집이 실렸던 그 호의 앞·뒤 문맥, 조선을 강조하는 특정 어휘 등에서 파악했음을 밝힌다.

<교차점>이나 주요 <현상모집> 외에 『삼천리』는 설문 방식, 공개장 개최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 이를 다루지는 않았다. 형식만 참여의 방식일 뿐 그 대상이 필진, 각계 유명 인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삼천리』는 초반, 각계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민족주의와 오락, 흥미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

한 ‘대중의 참여 형식’을 취했다. 『삼천리』의 ‘대중’은 실제 구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은 아니었다. 대중잡지의 상업적 속성은 구태여 대중독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잡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은 『삼천리』가 잡지사의 이념적 지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의 의향과 괴리된 형태로 참여 공간을 운영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삼천리』는 당시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실어 다양한 대중들이 『삼천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 속에서 잡지사의 이념적 지향성을 글에 드러내되, 동인지나 계몽지와 같이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와는 다른 대중·통속 잡지였던 『삼천리』는 독자에게서 어떤 행동이나 실천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천리』에 나타난 대중성 확보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대중잡지는 특수 목적을 지닌 계몽 잡지나 동인지에 비하여 주체화된 독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만복당 편집부, 『삼천리 앙케트』 (만복당, 2019)
- 천정환 외,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 출판부, 2010)
- 권채린, 『지방과 '그로'의 코드 - 1920-30년대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 김경미, 『『별건곤』 서사 독물의 대중성에 대한 매체 전략 연구』, 『어문학』 133 (한국어문학회, 2016)
- 박숙자 「『민족』과 『젠더』, 그 차이와 균열 - 대중잡지 『삼천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9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 박용재, 『『三千里』의 미디어이벤트와 ‘재가공’된 조선』,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2010)
- 서유리, 『시대의 얼굴 - 잡지표지로 보는 근대』 (소명출판, 2016)
- 이경돈 「『삼천리』의 서사와 텍스트로서의 정치 - 설문과 순례의 서사들」, 『대동문화연구』 71 (대동문화연구, 2010)
- 이승윤, 『『삼천리』에 나타난 역사기획물의 특징과 잡지의 방향성』, 『인문학연구』 4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 정진경, 『『삼천리』에 게재된 문학대중화 담론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5(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 차혜영, 『다이제스트 세계문학이라는 소비상품과 미디어자본의 문화정치학: 1930년대 『삼천리』와 『조광』을 대상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 천정환,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천정환,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최동호 · 최유찬 외,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 텍스트 연구』 (서정시학, 2012)

발표 3 「독자란 없는 『삼천리』의 대중성 - ‘교차점’과 ‘삼천리 일색’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이 정 용 (석사 4)

1. 투고문 「C언니는 나의 은인이외다」의 게재 배경과 편집진의 의도

‘삼각연애’를 주제로 한 현상모집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해당 투고문은 매체의 통속적 성격 이면에 내포된 계몽적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된다. 하지만 초창기 『삼천리』의 ‘민족’ 호출이 문화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기획된 것임을 감안할 때, ‘집단기억의 환기’를 넘어서 직접적인 운동 참여를 선전했던 해당 투고문은 매체의 지향에 상충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럼에도 편집진이 이질적 색채를 지닌 투고문을 게재한 것이라면 그 배경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린다.

2. ‘닫힌 독자 참여 방식’을 운용한 배경

〈교차점〉과 〈삼천리 일색〉은 외면상 독자와의 소통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편집진의 지향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독자 참여공간이 수동적으로 운용된 데에는, 이처럼 위로부터의 계몽적 의도(일부 민족 지도자에 대한 조망, 이상적 민족 표본의 제시) 외에도 독자의 소비 주체적 성격에 집중했던 상업지로서의 속성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된다. 곧 이면의 계몽적 기획과 표면의 상업성 극대화라는 상반되는 요인이 독자 참여공간에 혼재했다는 것인데, 양자 가운데 보다 근본적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일지 질문 드린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합동연구실 회보

合研 3

2020년 8월 초판 1쇄

인 쇄 북토리 BOOKTORY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30 한국학술정보(주) 북토리사업부
080-855-8285

제 작 사학과 합동연구실

편집·디자인 사학과 올림편집위원회 편집·디자인팀
博多

발 행 사학과 올림편집위원회



